

東醫寶鑑에 나타난 意識障碍를 隨伴하는 病證에 對한 考察

金 知 赫 · 黃 義 完

I. 緒 論

意識이란 環境에 적응하고 또 그것을 利用할 수 있는 能力, 즉 知的能力이 활동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는 精神機能을 말하며, 自身과 環境을 인식할 수 있는 能力을 말하기도 한다.²⁾ 다시 말하면 意識이란 知覺·領解·指南力·記憶·思考·感情·意欲 등의 모든 精神作用이 어느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統一的으로 行해지는 作用을 말한다.^{3,4)}

의식이 깨끗하다면 知覺中樞가 깨끗하다는 뜻이 되는데, 이는 五官의 機能이 건전하며 外界로 부터의 자극을 感知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⁵⁾

意識의 障碍는 일반적으로 意識混濁·意識變容·發作性意識障碍의 세 가지로 大別할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錯亂(confusion), 嗜眠(drowsiness), 昏迷(stupor), 半昏睡(Light coma), 昏睡(coma) 등으로 분류된다.¹⁷⁾

東醫學에서는 意識의 障碍를 人事不省·不知人·昏沈不省·昏冒·昏塞·暈倒·迷忘 등의 用語로 表現하고 있으며, 意識장애를 수반하는 病證으로는 中氣·氣逆·中風·中暑·瘧·薄厥·癲癇·癲狂·中惡·邪祟·客忤·鬱冒 등의 證으로 설명하고 있다.⁶⁾

이에 著者는 東醫寶鑑에 收錄된 意識障碍를 隨伴하는 病證을 調査하여 各 病證을 比較하고, 西醫學의 病名分類 中 어디에 해당되는 가를 검토함으로써 臨床에 도움이 되고자 本 研究를 시도하였다.

II. 本 論

中氣證은 昏冒暈倒하여 牙關緊急 등을 發하는

것으로⁷⁾ 대개 忿怒에 의해 나타나며, 五志가운데 怒가 가장 甚하다.⁶⁾ 즉 사람과 서로 다투거나 하여 暴怒함으로써 氣逆而暈倒하는 것이다.⁷⁾

氣逆證은 氣가 腹中에서 時時로 上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¹³⁾ 靈樞에서는 清濁이 相干하여 發하는데 氣亂于心하면 煩心密默·俛首靜伏하고, 氣가 頭部에 亂하면 頭重眩仆한다 하였다. 內經에서는 諸逆上衝이 대개 火에 屬한다 하였다.¹²⁾

神門에서는 神統七情傷則爲病이라 하여 肝悲哀動中하면 魂을 傷하고 魂傷하면 狂忘不精이라 하였다.¹²⁾ 肺喜樂無極하면 魄은 傷하고 魄傷하면 狂을 發하는데 狂이란 意不存을 뜻한다. 腎盛怒而不止하면 志를 傷하고 志傷하면 喜忘其前言한다. 悲로써 心包를 傷케하면 善忘·不識人 등을 發한다 하였다.¹²⁾

薄厥證은 氣絕을 뜻하는 것으로 大怒하면 形氣가 絶하고 血이 上部에 菀함으로써 薄厥이 된다.¹²⁾

健忘은 記憶力의 減退를 뜻하는 것으로 喜忘·善忘 등으로 表示되었다. 原因으로는 內經에서는 血并於下 氣并於上 亂而喜忘이라 하였고,¹²⁾ 丹溪는 精神短少者 多亦有痰也라 하였다.¹⁵⁾ 또 靈樞에서는 上氣不足 下氣有餘로 腸胃는 實하고 心肺가 虛하면 榮衛가 下部에 留하여 上升치 못하므로 發하며, 또한 腎盛怒而不止하면 志가 傷하여 喜忘其前言이라 하였다.¹²⁾

癲癇은 卒然暈倒하여 咬牙作聲·口吐涎沫·不省人事·隨後醒醒하는 것으로, 中風·中寒·中暑·尸厥 等과의 鑑別은 前者는 仆時口中作聲·將省時吐涎沫·省後又復發·時作時止而不休息

하나, 後者는 仆時無聲·省時無涎·後不再發한 點이다. ⁸⁾ 原因으로는 痰邪가 逆上하여 發한다 하였으며, ⁹⁾ 痰이 膈間에 있으면 眩微不仆하고, 痰이 膈上으로 溢하면 眩甚하여 仆倒하여 不知人한다 하였다.

癲狂이란 衣被不歛하고 言語善惡하며 不避親疎하는 것으로 神明이 亂한 것이다. ⁶⁾ 陽明病이 甚하면 棄衣而走·登高而歌하고 數日 동안 不食하며 踰垣上屋所上之處하는 등 平素의 행동과 다르다. ⁶⁾ 陽이 盛하면 妄言罵詈·不避親疎하며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고 돌아다닌다. 또한 邪가 陽에 入하면 狂이 된다. 難經에는 狂의 始初에는 少臥而多起하며 스스로 賢人행세를 하고, 뛰어난 척, 貴한 척하며, 妄笑好歌樂 妄行不休하는 것이라 하였다. ¹⁶⁾ 入門에서는 癲은 精神이 痴呆하고 言語에 倫理를 잃고, 輕症은 自高自是하며 歌舞를 좋아하나 甚하면 棄衣走하며 踰垣上屋하는데, 더욱 甚하면 머리를 풀어헤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물불을 겁내지 않고 殺人까지도 서슴치 않으니 이는 痰火가 壅盛하여 된 것이라 하였다. ¹³⁾

蓄血證은 傷寒熱病에 身黃·屎黑·如狂喜忘 등을 發한다 하였으며, ¹⁴⁾ 蓄血外證은 痰嘔·燥渴·昏聩·迷忘 등을 보인다. ¹⁰⁾ 失血諸證에 있어서 蓄之在上은 喜忘하고, 蓄之在下는 喜狂한다. ¹⁵⁾ 嘔血吐血 時 目紅·骨熱·神昏·狂譫 등은 모두 血證이라 하였다.

昏沈多睡證은 多眠·昏昏閉目·默默不欲言 등의 症狀을 나타내는 것으로 傷寒의 邪氣가 陰部로 傳入하면 多眠한데 昏昏閉目하는 것은 陰主闔이며, 默默不欲言함은 陰主靜이라 하였다. 或 熱病에 得汗한 後에 脈이 沈細하고, 身冷·喜臥·昏沈不省할 때는 급히 四逆湯을 投與한다. ¹³⁾

言語譫妄은 亂語를 뜻하는 것으로 無倫된 말을 하는 것은 邪氣가 勝한 것이다. ⁷⁾ 或 平素의

常事를 말하며, 或은 눈을 뜨고 사람이 보지 못한 사실을 말하기도 하며, 或 혼자 말하고, 或 수면 中 잠꼬대를 하기도 하며, 或 呻吟을 그치지 않고 甚하면 狂言罵詈하는데 모두를 譫語라 이르고 대개는 胃熱이 心에 乘하여 나타난다.

鄭聲은 言語가 重復되는 것으로 聲音이 완전치 못하고 模糊하며 바르지 못한 音을 말한다. ¹³⁾ 이는 言語가 다음 말과 接續되지 못하는 것으로 精氣가 虛脫된 所致이니 ⁷⁾ 大病後에 많다.

心外證은 面赤·口乾·善笑하는데 ¹⁶⁾ 內經에 이르길 心은 神을 藏하는 바, 神存餘則 笑不休한다 하였다. ¹²⁾ 癲狂이나 邪祟에 대개 或歌 或哭하는데 ⁸⁾ 脾의 聲은 歌로서 足陽明의 脈病이 甚하면 欲上高而歌한다. ¹²⁾ 婦人藏燥는 悲傷欲哭하는 것으로 肺外證에 面白·善噓·悲愁不樂·欲哭 등을 나타낸다.

痰飲流注證에 있어서 痰涎이 心膈上下에 伏하면 或 頭痛不舉하거나 或 神意昏倦多睡 등을 發한다.

痰病에 邪祟와 類似한 證이 있어 視聽言動이 모두 虛妄하다. 이는 血氣가 兩虛한데 痰이 中焦에 客하여 升降을 妨碍함으로써 運用하지 못하여 十二官이 그 職能을 喪失한 때문이다. ⁶⁾

痰厥은 內虛受寒하여 痰氣가 阻塞됨으로써 手足이 厥冷麻痺되며 暈倒하는 것이다. ⁶⁾

心病證은 甚痛·喜悲·時眩仆 등을 發하는 證으로 邪氣가 心에 入하여 나타난다. ¹²⁾ 心傷證은 其人多畏 合目欲眠·夢遠行而精神離散되는 證으로 心氣가 虛하여 發하는 바, 陰氣가 衰하면 癲, 陰氣가 衰하면 狂이 된다.

婦人이 傷寒으로 發熱할때 月經期를 당하여 經行이 不調하면서 晝間에는 明了하다가 夜間에는 鬼狀을 보는 듯 譫語 등을 發하는 것은 熱이 血室에 侵入했기 때문이다. ¹⁴⁾

疰心痛은 갑자기 惡忤와 尸疰에 감염되어 神昏卒倒하며 口噤不省한다. 積心痛은 음식 後에

忽然暈倒하고, 口噤不語·目不識人·四肢不舉하는 證으로 飲食過度로 氣道가 窒塞되어 發한다.

手循衣撮空摸床證은 傷寒에 熱病이 極하여 손으로 옷을 어루만지고, 헛손질하며, 寢床을 만지작거림으로 產後의 失血에도 發病된다.⁸⁾ 患者가 손으로 옷깃을 찾고 요란하게 물건을 잡는 것은 肝熱이고, 손으로 眉目과 鼻面을 두드리는 것은 肺熱한 까닭이다.⁹⁾ 患者는 반드시 謔言妄語한다.

脚氣危證에서 脚氣가 心에 들어가면 恍惚譫語 嘔吐不食 등을 發하면 死한다. 脚氣凶證에서 脚氣가 心에 衝하면 恍惚氣急 脈乍大乍小하여 역시 死한다.¹³⁾

瘧疢 中 氣瘧은 원래 濕熱이 있는데다 忿怒로 因하여 火가 激하므로 昏眩·手搐·面黑 等症 및 擧丸이 좌우로 서로 來往하는 것이다.¹⁴⁾

風門에 熱生風이라 하여 平素 調理를 잘못하여 心火가 暴盛할때 腎水가 虛衰하여 그 火를 억제하지 못하면 陰虛陽實이 되어 熱氣가 拂鬱하면 心神昏冒·筋骨不用而卒倒·無所知하게 된다.^{1,6)}

中風의 諸證은 卒中·暴仆·暴瘖·蒙昧·口眼喎斜·手足癱瘓·不省人事·言語蹇澀·痰涎壅盛 等證으로 表現된다.

風懿證은 忽然迷仆해서 舌強不語·喉中窒塞·噫噫有聲하는 것을 말한다.^{1,10)}

精神蒙昧란 昏冒茫昧로서 精神이 不爽하여 어떤 물건으로 蒙蔽한 것 같은 症이다.⁸⁾

諸風의 病名 中 癩風이란 急倒하여 作聲하고 搐을 發하는 證이다.

瘖病은 搖頭·露眼·噤口·手足搐搦·項強·背反張¹³⁾ 등을 發하는 것으로 癩病과의 차이점은 癩은 身軟·時醒하나 瘖病은 身強直反張·不時醒·甚則 昏冒而逐亡 等이 다르다.¹⁵⁾

破傷風凶證에서 昏因失音하며 目睛直視·滑泄不禁 等이 있으면 위독하고,¹⁰⁾ 또 目瞪口開·

神氣昏冒·不知人하는 것은 死한다.⁷⁾

中寒證은 口噤·四肢強直·卒然暈倒하는 證으로 寒邪가 三陰經에 직접 侵入하여 卒然昏不知人하며, 口噤하고 四肢가 強直拘急疼痛하기도 하여 급히 치료하지 않으면 命이 朝夕에 달린 病이다.^{1,6)}

中暑證에는 六脈이 沈伏하고 冷汗이 自出하며 悶絕 昏昧하여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기도 한다.¹⁰⁾

中暑후에 또 다시 風邪에 傷하면 暑風證이 되어 搐搦하고 不省人事 等を 發한다.¹³⁾ 原因으로는 火와 痰을 들 수 있는 바, 火는 君相의 二火요, 暑는 天地의 二火이니 內外가 습하여 炎燥하여 卒倒하는 것이고, 痰이란 人身의 痰飲으로서 暑氣가 侵入되어 痰飲을 鼓激하면 心の 竅道를 塞碍함으로써 手足不知動蹻 卒倒하게 된다.¹⁵⁾

中濕證은 面色이 浮澤하고 腹脹倦怠하며, 四肢關節이 疼痛하고 煩悶하며, 或은 一身이 重着하고 오래되면 浮腫·喘滿證을 發하며, 昏冒하며 人事不省한다.^{1,6)}

骨蒸熱의 證狀은 咳嗽發熱하며, 咯血吐痰하고, 白濁白淫이 排泄되며 遺精 盜汗 等證을 야기하고, 精神이 恍惚하며 점차 消瘦하여 勞劇證이 된다.¹¹⁾

食後에 困倦하고 精神이 昏冒하면서 欲睡하는 것은 食後昏困證으로 脾가 虛弱하여 發한다.⁶⁾

食厥證은 飲食過度로 卒然暈倒·口噤不能言·目不識人·四肢不舉 等の 異常之疾을 發하는 것이다.

痰癘은 外感과 內傷으로 因하여 鬱氣가 結聚되어 形成된 所致이다. 症狀은 頭痛 肉跳하며, 飲食을 吐하고 涎沫을 嘔出하며, 甚하면 昏迷卒倒한다.

邪祟란 視·聽·言·動이 모두 妄靈된 것을 말하며 甚하면 평생에 보고 듣지도 못한 일을 능히 말하기도 하며, 마치 鬼神과 通하는 듯한

言行을 하기도 한다. 이 같은 症狀은 모두 氣血이 極虛하여 精神이 昏亂해 짐으로써 오는 것이며, 때로 痰火가 盛해서 오는 것이지 실제로 鬼神이 시켜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1,6)} 症狀으로는 癩과 비슷하나 癩은 아니며, 때로는 멀쩡할 때도 있고, 때로 精神이 흐리기도 하다.⁷⁾ 邪祟는 때로 노래 부르고 울기도 하며, 또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린대거나 공연히 웃기도 한다. 또는 잠만 자든가 더러운 곳을 가리지 않고 아무데나 앉고 누우며, 大便이나 더러운 것을 태연히 먹기도 한다. 또는 옷을 벗고 裸體로 다니기도 하며, 晝夜를 가리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함부로 욕설하기를 그치지 않는다.^{1,6)} 사람이 鬼神에 쫓우면 悲愁에 빠지기 쉽고, 精神이 昏亂해서 꼭 술취한 것 같기도 하다. 狂言과 잘 놀라고 壁을 향해 슬피 울기도 하며, 때로는 잠을 자다 꿈에서 놀란듯 자주 깨기도 한다. 病人은 항상 妄想이나 환각에 사로잡혀있어 異常한 말이나 행동을 하므로 마치 鬼神과 通하는 인상을 준다. 寒熱이 교차하며, 心下部나 腹部가 滿하여 短氣하고 不能飲食한다.⁹⁾ 精神상태가 완전치 못하고 항상 두려운 생각이 많으면 마침내 鬼神에 사로잡히게 되어 邪祟證이 오게 된다. 症狀은 침울하여 默默不應하며 妄靈된 소리나 헛소리를 하고, 남을 비방하거나 나무라는 말이 많아진다. 이와 같은 말은 親疎나 長幼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아무한테나 한다. 또 앞으로 닥칠 일의吉凶을 즐겨 이야기 하며, 때로 그 말이 맞기도 한다. 또 남의 마음 속의 생각을 미리 알기도 한다. 그리고 높은 곳도 잘 오르고, 悲感에 빠져 잘 울면서 푸념을 말한다. 사람을 싫어하며 마치 술에 취한 듯 또는 미친 듯 하여 그 증상이 여러가지이다.⁸⁾

中惡·客忤證은 어두운 밤에 便所에 가거나 或은 郊外에 나가거나 或은 空冷한 屋室에

들어갔을 때 惡氣에 觸傷되어 發病되는 것이다. 症狀은 幻像이 보이며 卒倒하고, 不省人事·四肢厥冷·兩手が 拘攣되며 口鼻出血하는 등 生命이 위독하게 된다.^{1,6)}

尸厥이란 中惡의 一種으로 吊喪하거나 問病을 하거나 或은 墓閣에 들어갔을 때 邪惡의 氣와 臟氣가 相逆하므로 卒中하여 昏冒한다. 症狀은 手足이 逆冷하고 頭面이 靑黑하며 牙關이 緊急하고, 頭旋昏倒하여 人事不省 或 錯言妄語하기도 한다.

鬱冒의 症狀은 卒地에 昏冒不省하며,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默默히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뜨지 못하고, 말을 못하며, 或 사람을 若干 알아보아도 사람의 말소리를 듣기 싫어하며, 眩冒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는데 一名 血厥이라 하며, 婦人들에게 많은 病이다.^{1,6)}

客忤 卒厥諸證에 있어서 客忤는 中惡證의 一種이니 대개 路上이나 屋外에서 發病되며, 心腹이 紋痛하며 脹滿하고 氣가 心胸으로 上衝하므로 卽治하지 않으면 위험하다.^{1,6)}

卒厥이란 陰氣가 上部에 盛하면 下部가 虛해져서 腹脹滿하고, 陽氣盛於上하면 下氣가 더욱 上昇하여 邪氣가 逆上하며, 陽氣가 混亂하므로 卒厥證이 되어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1,6)}

脫陽證은 吐瀉를 심하게 한 後에 元氣가 涸竭되어, 四肢가 逆冷하고 顔色이 變黑하며, 氣喘하고, 冷汗이 自出하며 陰莖이 收縮되며 人事不省하여 傷寒陰陽易證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서 頃刻間에 구하기 어렵게 되는 것을 말한다.⁶⁾

III. 考 察

意識障礙를 일반적으로 意識昏濁·意識變容發作性意識障礙로 大別할 수 있는데, 意識昏濁

이란 外界의 자극이 정신현상으로 轉化되기 힘든, 즉 의식의 문턱(闕)이 높아져 있는 상태이다. 이에는 昏蒙과 昏睡가 해당된다 하겠다. 意識變容에는 譫妄·朦朧狀態·錯亂 등이 해당되며, 朦朧狀態는 의식의 무대가 좁아진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의식의 내용은 貧弱해지면서 단지 한가지 일밖에 모르는 듯한 행동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 下에서 경험한 것은 나중에 전혀 追想할 수 없는 것이 특징이다. 譫妄은 高熱이 있을 때 熱에 들며 意識昏濁 下에 헛소리를 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것이다. 錯亂은 唐恍·混亂·指南力喪失·聯想的障礙·思考의 貧困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의식의 장애를 말한다. 發作性意識障礙는 失神·癩疾性意識障礙·Narcolepsy의 意識障礙 등이 해당되는 바 失神은 腦血管의 機能障礙라 생각되며, 日射病이나 心的충격을 받았을 때 일어나며 단시간 內에 깨끗히 회복된다. Narcolepsy의 意識障礙는 筋의 脫力과 더불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졸음이 發作的으로 오는 Narcolepsy에서는 睡眠樣의 意識障礙가 온다.

東醫寶鑑에 收錄된 意識障礙를 隨伴하는 病證으로는 中氣·氣逆·薄厥·癩癩·癩狂·昏沈多睡·言語譫妄·鄭聲·痰厥·疰心痛·手循衣撮空摸床·癩疔·中風·瘧·中寒·中暑·中溫·食後困倦·食厥·痰癘·邪祟·中惡·客忤·尸厥·鬱冒·脫陽 등이 있으며, 이 外에도 傷神·健忘·蓄血·心外證·痰飲流注·心病證·婦人傷寒·脚氣危證·骨蒸熱 등에서 意識障礙를 나타낸다고 說明하였다.

이들 中 精神科 領域에 해당되는 病證을 分類하여 보면 中氣·氣逆·傷神·薄厥·癩癩·癩狂·昏沈多睡·言語譫妄·鄭聲·疰心痛·癩疔·邪祟·中惡·客忤·尸厥·鬱冒 등이 해당될 수 있다 하겠으며, 中氣·氣逆·傷神·薄厥·疰心痛·鬱冒 등은 西醫學的으로 히스테리 전환형

에 유사하다 할 수 있으며, 癩癩은 癩疾에, 癩狂·邪祟 등은 精神分裂病과 유사하며, 이 밖에 心外證·心病證·中惡·客忤·尸厥 등은 Neurosis의 범주에 속한다 하겠으며, 瘧는 腦의 炎症變化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설명하고 있으며, 言語譫妄, 鄭聲은 精神病 계통에서 출현하는 증상의 표현이라 하겠다.

IV. 結 論

以上과 같이 考察하여 본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意識障礙의 表現은 人事不省·不知人·昏冒·昏沈不省·昏塞·暈倒·迷忘 등의 用語로 나타났다.
2. 意識障礙를 隨伴하는 病證으로는 中氣·氣逆·傷神·薄厥·癩癩·癩狂·蓄血·昏沈多睡·心外證·疰心痛·積心痛·脚氣危證·中風·瘧病·中寒·中暑·中濕·痰癘·骨蒸熱·邪祟·中惡·客忤·尸厥·鬱冒·脫陽證 등에서 說明되었다.
3. 精神科 領域에 해당되는 病證으로는 中氣·氣逆·傷神·薄厥·癩癩·癩狂·昏沈多睡·言語譫妄·鄭聲·心外證·心病證·心傷證·疰心痛·瘧病·邪祟·中惡·客忤·尸厥·鬱冒 등 證으로 表現되었다.
4. 西醫學的인 疾病分類과 연관시켜 보면, 中氣·氣逆·薄厥·鬱冒은 히스테리와 유사하며, 神傷·心外證·心病證·疰心痛·中惡·客忤·尸厥 등은 노이로제의 범주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癩癩은 癩疾에, 癩狂·心傷證·邪祟 등은 精神病 계통에 屬한다 하겠다. 言語譫妄이나 鄭聲은 精神病에서의 症候를 설명하였으리, 其他, 昏沈多睡는 嗜眠病에, 瘧는 腦의 炎症性病變에 해당된다 하겠다.

參 考 文 獻

1. 金定濟：診療要鑑，서울，東洋醫學研究院，
p.222, 224, 225, 227, 230,
231, 237, 243, 244, 245, 252,
370, 373, 447, 460, 481, 476,
525, 550, 559, 575, 606, 744,
1974.
2. 李丙允外：現代精神醫學，서울，一潮閣，
pp.28 ~ 29, 1983.
3. 李文鎬外：內科學，서울 博受出版社，
pp.199 - 210, 1980.
4. 鄭壹千外：醫學用語辭典，서울，高文社，
p.423, 1981.
5. 韓東世：精神科學，서울，一潮閣， p.41,
1982.
6. 許 浚：東醫寶鑑，서울，南山堂， p.89
91, 95, 96, 98, 99, 101, 106,
107, 108, 116, 121, 122, 132,
141, 145, 162, 262, 264, 274,
301, 303, 306, 311, 359, 360,
364, 369, 376, 378, 380, 404,
409, 421, 435, 441, 443, 590,
592, 591, 1976.
7. 龔廷賢：萬病回春，서울，杏林書院， p.60,
224, 225, 1972.
8. 樓 英：醫學綱目，台南北一出版社，卷十
一， p.12, 13, 卷十六， pp.47
- 54, 1973.
9. 巢元方：巢氏諸病源候總論，昭人出版社，
卷二， p.16
10. 楊士瀛：仁齋直指方，서울，東醫社， p.94
95, 45, 100, 1978.
11. 虞天民：醫學正傳，서울，醫藥社， p.232,
233, 1973.
12. 王冰註：黃帝內經，서울，高文社， p.30,
269, 303, 1971.
13. 李 梴：醫學入門，서울，翰成社， p.397,
398, 293, 294, 297, 287, 301,
1980.
14. 張仲景：仲景全書，서울，大星文化社，
p.598, 599, 1984.
15. 朱震亨：丹溪心法附錄，서울，大星文化社，
p.141, 357, 614. 1982.
16. 難經譯釋，昭人出版社， p.56, 202
17. Martin A.Samuels M.D.: Manual of
Neurologic Therapeutics,
U.S.A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p.4, 5,
1982.